

광주·전남 중학교 코로나 확산 나주 기도원서 18명 집단 감염

백신 미접종 청소년 중심 재유행 조짐... 전국 일주일 연속 2천명대

광주·전남 중학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백신 미접종 청소년을 중심으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요양병원 집단 감염에 이어 종교시설 집단감염도 발생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서구 모 요양병원 관련 1명(누적 67명), 광산구 대형사업장 관련 2명(누적 40명), 기존 확진자 관련 3명,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5명 등 모두 11명이 신규 확진됐다. 유증상자 가운데 2명은 북구와 광산구 중학교 학생이다. 방역 당국은 학교별로 250명, 298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서구 중학교 관련 14명, 광산구 초등학교 관련 22명 등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와 위치 정보 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검사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자를 재분류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15일 하루 동안 29명이 신규 확진됐다. 나주 17명, 장성 4명, 순천·광양·구례 각 2명, 영암·해남 각 1명이다. 16일 오후 6시까지 전남에서는 21명이 추가됐다. 목포 15명, 순천 3명, 여수·나주·장흥 각 1명이다. 특히 목포에선 유달중학교에서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 방역당국은 우선 집단감염이 터져 나온 나주 세지면 소재 기도원에 대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이틀간 해당 기도원에서는 모두 18명이 확진됐다. 감염 우려가 있던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기도원에 다녀간 이는 종사자를 포함해 모두 62명. 이 가운데 목사와 장로, 전도사 등 시설 관계자가 3명, 신도 15명이 확진됐다. 이들 가운데 접촉

원료자는 단 3명으로 방역당국은 이들이 대체로 저질환을 갖고 있어 접촉을 낮추고 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44명은 음성 판정 33명, 검사 진행 중 11명이며 모두 시설 또는 자가 격리 중이다.

방역당국은 기도원 집단감염이 서울 열린교회 확진 사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동작구 열린교회에서는 최근까지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나주 세지 기도원 확진자 2명이 최근 서울 열린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전남에서는 최근까지 여수 모 요양병원에서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전국에서는 지난 15일 하루 동안(16일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125명이 나오면서 지난 10일부터 1주일 연속 확진자 2000명대를 이어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갯벌, 세계 유산 가치에 맞게 이용·보전 전략 수립 시급”

광전연 김준 박사 정책 브리프

한국의 갯벌이 지난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등재된 갯벌 면적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갯벌이 육지의 여건 변화, 온난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황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6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 책임연구원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1284.11km²)’의 약 95%를 차지하는 전남(1216.05km²)의 역할과 그 의미를 조명하고, 세계유산이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보전 및 이용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은 그동안 ‘습지보전법’에 기초해 보존·관리되어 왔으며, 과거 ‘습지보호지역’, ‘탐사르습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등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전남의 갯벌은 어촌계, 자율어업공동체 등이 주축이 되어 꼬막, 바지락, 낙지, 김 양식 등이 이뤄지는 공동 어업 공간으로 경제활동과 함께 보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유산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준 책임연구원은 “한국 갯벌의 보편적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모니터링과 지역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증진이 요구되며, 유산구역에 해당되는 충남·전북과 함께 이해당사자를 아우르는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통합된 정책 추진을 위한 갯벌보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동시에 그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도 갖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등재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하는 유산의 ‘완전성’을 위해 보성·순천갯벌을 포함한 여자인, 습지보호지역 무안 갯벌을 포함한 함해만, 신안갯벌 인근 탄도만갯벌 등 유산구역 확대가 필요하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

로림안이나 철새의 서식지로 세계에 알려진 강화갯벌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한국의 갯벌’이 지난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자연유산 2개, 문화유산 13개 등 총 15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CC 출입 편안하게...국외 에스컬레이터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국외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경관을 개편하는 등 각종 시설과 환경 개선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사진은 17일 개통하는 지상 하늘마당 입구에서 지하 3층 문화창조원을 잇는 에스컬레이터 모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기자 노트

금호와 ‘호남’



박기웅
경제부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이 지난 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활용해 금호고속에 자금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과정을 들여다보면 박 전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개인의 사욕이 아니라 그룹의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박 전 회장 사건을 지켜보는 호남인들의 안타까움이 한층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도 지역민들은 금호를 떠올리면 마음이 안타깝고 찝찝 수밖에 없다. 택시 두 대로 시작한 ‘박인천 창업주’는 광주역객을 설립해 버스 운수업계에 뛰어들었고, 1970년대 호남고속도로 개통으로 급성장했다. 당시 호남인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맞수인 중앙고속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뒤 타이어와 건설,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하며 그룹의 기초를 다졌다. 1988년 제2인행사 선정과 함께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등 위용을 뽐내던 시절도 있었다.

한 때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30대 그룹에 이름을 올렸고, 재계 7위까지 뛰어올랐던 ‘호남기업’ 금호의 쇠락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애잔함은 단순히 금호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라는 차이다.

금호는 76년을 지역민과 동고동락해왔다. 호남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

을 이뤄왔으며, 호남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수많은 공헌을 해왔다. 박인천 창업주는 ‘영재는 기르고, 문화는 기르고’라는 사회공헌 철학으로 1959년에 죽호학원을 설립해 교육사업에 헌신했고, 1977년 금호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광주상공회의소 설립 이후 24년간 회장을 지내며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경제는 물론 문화, 교육, 체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공헌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금호에 대한 호남인들의 금지는 높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호남에서 금호 같은 그룹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며 안타까워한다. 박 전 회장이 구속에서 풀려났으나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그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 전 회장의 신병이 다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 금호그룹의 재건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질 게 뻔하다.

금호그룹은 누가 뭐라 해도 호남인들의 정서가 깊게 뻗어 들어간 기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호남을 주 기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기업의 문제를 포함해 경제적 상황을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풀려고 해서 안된다. 하지만 낙후된 호남경제를 고려할 때 지역에 76년 뿌리를 내린 대표기업이 위기에 처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역민의 생각이다. 금호 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호남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광주시-전남도, 상생발전 실무위원회 개최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형 국제행사 유치에 공동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또 달빛 고속철도 및 전라선 조기 착공,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남도 달밤 예술여행지 육성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시·도는 공동 발전을 위한 과제를 계속 발굴해 최종적으로 이날 말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6일 광주시청에서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이날 3일에 개최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앞서 공동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위원과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로 발굴된 과제 7건과 기존 과제 33건의 추진상황에 대해 상호 간 의견을 조율했다.

‘2021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상정될 신규 안건으로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해야 할 사업과 초광역 협력 사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발굴됐다.

시·도는 기존부터 추진 중인 33건의 공동협력 과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맹지사절. 010-6837-4700

5억 이상
경기, 수도권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매각공고

1. 입찰내용: 발파암 매각
2. 매각물건의 표시
 - 가. 적지장 위치: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일원 (보성-임성리 6공구 현장)
 - 나. 매각면적: 30,000m²(자연상태)
3. 입찰방법: 일괄 매각 입찰
4. 현장설명: 생략(문의 061-463-6630)
5. 입찰일시 및 장소
 - 가. 입찰등록 마감일: 2021년 11월 22일(월) 10:00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22일(월) 10:30,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주소: 전남 영암군 서호면 청룡리 605-1번지)
6. 입찰참가자격
 - 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전적자를 시한 내에 제출한 자
 - 나. 국제정수법 제66조(배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 다. 기 입찰과 관련된 협약 위반업체 제외
 - 라. 동 사업구간 낙찰금액 확인 및 동등 이상 저지급금 일체 입찰 참가 허용
 - 마. 입찰일 현재 당 현장 내에서 운전행 중인 업체는 제외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저수비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발파암 매각금액 등 경제성 및 계약이행능력을 검토하여 낙찰자 저수비 1인 선정
 - 나. 계약이행능력은 최종 낙찰자 선정 전 사전검토(반출계획, 반출위치, 반출방법)를 통과해야 함
 - 다. 경제성 검토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저수비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기한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후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8. 기타 특이사항
 -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이행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해야 함
 -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적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반출 전 낙찰금액 선납 후 반출하여야 함
 - 라. 상차, 운반, 안전, 환경, 민원관리 관련 인허가 비용은 수요자 부담으로 견적하여야 함
 - 마. 운반관련 차량은 반드시 세련기 세척 후 출차하여야 함
 - 바. 적지 후 반출 요구 시 즉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 암매역 처리 시 불순물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 아. 1일 발파량 600m³ 이상 반출하여야 함
 - 자. 암 반출 시면 시(1일 발파량 800m³ 미만) 자동으로 계약해지되고 선납한 매각대금은 반납하지 않음
 - 차. 상기 매각대상수량은 발주처 및 현장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 기타 발파암 반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반출 후 매수인의 불합격자, 목적의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해야 함
 - 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청구, 행정기관 등에 접수된 민원,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보성-임성리 제6공구 건설사업관리단 (☎ 070-4458-2953)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담당자 (☎ 062-602-5332)

2021년 11월 17일

KRR 국가철도공단
KOREA NATIONAL RAILWAY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라프 129m²(39평)
 - 토지 8,098m²(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중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곡,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m²(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중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카페 등 다목적 사용부지
 -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이리산 바라본 경관수려 m²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중)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포마을 조성지 근접
 -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도시 시장인접
 -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²(1,276평) 매 m² 6천5만원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옹기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투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m²(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m² 6천원
 -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m²(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사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m²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홀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은주 010-3454-2389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이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직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